

부산시, 3552억 투입 미세먼지 줄인다

예산 73% 증액... 저감대책 추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5월 시행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도 줄여야

부산시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 $\mu\text{g}/\text{m}^3$ 로, 좋음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고농도일수는 89% 감소해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시행한 것과 코로나19 영향,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73% 증액된

3552억원을 투입해 부산의 특성을 감안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형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 $\mu\text{g}/\text{m}^3$ 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5월에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항선 뿐만 아니라 내항선도 올해 선박검

사일부터 황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과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해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또, 내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총 2만5000대

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만 2000대에 대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1만대, 수소자동차 4600대 구매를 지원한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통해 공단 내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운행을 확대하며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지난 2019년 신안군 섬 툰립축제장 모습.

신안군, 코로나19 여파 2021 섬 툰립축제 취소

신안군은 4월 중순 개최 예정이던 2021년 섬 툰립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펴보고 비대면 랜선축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3차 대유행 이후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툰립축제가 열리는 입자도는 3월 입자대교 개통과 함께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수많은 상춘객들이 입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입자도 방문 자제 홍보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툰립 개화 전 꽃봉오리를 제거해 상춘객들의 현장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 방역초소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할 방침이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예천군, 신규기업·근로자 정착 지원

1년간 대출이자 2% 보전

예천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돋우고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취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며 '기업이 찾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2농공단지 20필지를 분양 완료했고 올해 잔여필지(5필지) 분양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으로 신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와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용자 추천해 1년간 대출이자 2%를 보전하는 등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쓴다.

1억여 원 사업비로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사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 관내 수출기업에 1억 원을 들여 수출기업 홍보 컨텐츠, 시제품 제작, 제품포장 및 물류 지원, 통번역 등을 지원한다.

2023년 조성 완료 예정인 제3농공단지(보문면 신월리 일원 예정)조성을 단계별로 진행해 농촌 지역 균형발전과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우리 예천군이 가진 강점과 신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유치활동을 펼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경북)=김귀열 기자



임청각 앞 철로. 일제 강점기, 안동의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앞에 놓인 철로가 약 80년만에 철거됐다.

독립운동가 이상룡 생가 안동 임청각 복구 가시화

2025년까지 280억 들어 원형복구

안동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안동댐 초입에 있는 임청각(臨淸閣·보물 182호)이다.

임청각은 일제 강점기에 거국음(去國吟, "이 땅에 적의 그물 쳐진 것을 보았으니 어찌 대장부가 제 한 몸을 아끼랴")을 읊조리며 53세의 나이에 만주로 향해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다.

석주 이상룡은 1858년 11월 25일 안동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상희였다. 한말 퇴계학통의 유학자로 고성 이씨 17대 종손이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1911년 1월 5일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조상 신주를 땅에 묻고 힘을 길러 나라를 찾겠다고 고향을 떠났다.

만주로 망명 후 서간도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인 경학사를 만들고 훗날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1913년 독립자금에 부족하자 대종택 임청각을 팔아 군자금으로 보냈다.

1925년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추대됐다. 하지만 끝내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중국 지린성에서 1932년 숨을 거뒀다.

자신을 비롯해 3대에 걸쳐 11명이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조국 독립의 밑거름이 됐다.

1990년이 되어서야 그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고 2009년이 되어서야 국적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일제가 임청각을 반 토막내며 가로질러 설치한 철로가 철거됐다. 이제 임청각 복원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안동시는 2018년 임청각 복원 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까지 280억 원의 예산으로 임청각을 원형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임청각 복원을 통해 아픈 역사를 청산하여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기득권을 포기하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본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장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경북 '보이소 TV' 유튜브 채널인증 배지 획득

경상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 TV'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유튜브 채널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

유튜브는 물론 SNS 전 채널 모두 인증 배지를 보유한 건 경북도가 유일하다.

'인증 배지'의 획득 요건은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튜브 본사(구글)에서 채널의 운영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 진위성, 완전성 등 일정 자격을 심사해 부여한다. 인증배지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보이소 TV가 최초다.

유튜브 측은 채널이 인증되면 기관의 공식 채널로 공인되는 것이며 이름이 유사한 다른 유튜브 채널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 배지는 현재 PC 버전에서만 제공, 모바일은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광양시 '사회책임 이행 평가' 전남 1위

총점 660.67점 받아

광양시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CSR연구소와 넥스트데일리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 22일 발표한 '2021 대한민국 지자체 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는 1000점 만점에 총점 660.67점을 받아 전라남도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는 전국 지자체가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

졌다.

이번 평가는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에서 '4만 명 미만' 총 7개 구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BL(경제·사회·환경성과) 모델을 바탕으로 '삶의 질(450점)'과 '여건 및 책임(550점)'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지표 결과는 광양시가 시민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상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청년, 은퇴자까지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유입과 유지에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aacecom@